

보도시점 2026. 2. 10.(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6. 2. 9.(월)

대구 물 문제 해결 전략, 시민 소통 기반으로 추진

- 기후부, 2월 11일 오후 대구 지역 20여 개 시민사회와 간담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역 현안인 ‘대구 맑은물 공급 문제’의 해결 전략을 대구 지역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월 11일 오후 2시부터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대구 동구 소재)에서 ‘대구 지역 시민사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우리나라 3대 물 분야 학술단체인 대한환경공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낙동강 먹는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토론회*’에 이은 공개행사다.

* (기후부 보도자료, 1.23) ‘낙동강 먹는물 불안 줄인다… 기후부, 대구 물문제 해법 논의’

이 행사는 대구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적·기술적 접근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구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분류 수질 개선을 토대로 한 취수 방식 전환 전략(복류수·강변여과수 등 도입)’에 대해 전략 수립 배경과 기존 대안과의 다각적인 비교, 세부 기술 내용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오랜 기간 물 문제로 불편을 겪어온 대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뢰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남아 있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간담회 개최계획.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형섭 (044-201-7140)
		담당자	사무관	김찬웅 (044-201-7159)



☐ **추진 배경**

-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 과정에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지역 시민사회와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복합적으로 검토

☐ **토론회 개요**

- (時/所) 2.11(수) 14시 / 대구 콘텐츠비즈니스센터 다목적홀(1층 가운데홀)
- (참석자) 기후부, 대구시, 대구 지역 환경 분야 시민사회 등

☐ **세부 일정(안)**

시간		주요 논의사항	비고
14:00~14:30	30'	■ 참석자 등록	
14:30~14:35	5'	■ 행사시작 및 인사 말씀	기후부 물이용정책관
14:35~14:55	20'	■ 낙동강 물 문제 관련 경과 및 정책 방향 소개	기후부 물이용정책과장
14:55~15:55	60'	■ 사업 관련 자유 QA	
15:55~16:00	5'	■ 내용 요약 및 마무리 말씀	기후부 물이용정책관